

피 부

- 분석심리학적 조명 -

박 영 선*

국문초록

피부는 우리 몸의 맨 바깥을 둘러싸고 있어 신체를 보호하며 생리적으로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인체 기관의 하나이다. 그러나 생리적 기능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차원을 포함하는 인간 정신의 다채로운 내용들이 그 위에서 풍부하게 표현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분석심리학의 관점을 바탕으로 피부가 가지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들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으로 구성되며 방어막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체온 조절, 비타민 D합성, 감각 기능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여러 역할들을 담당한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심리적 요인과 생리적 변화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 노력하고 있어 향후 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정서적 관련성에 관해 좀 더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일찍이 융은 정신양 기능에 대한 가설이나 동시성 이론을 통해 물질과 정신 사이의 연관성을 직관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논문에서는 일상의 언어에 나타나는 피부 관련 표현들을 통해 피부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어는 한 집단의 정신세계를 담지하는 전달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부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특별한 사회적, 심리적 반응을 유도하고 환자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페르조나는 인격의 외피로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역할인데 이는 자주 신체의 외피인 피부를 통해 표현된다. 자아 이미지, 자아 정체성은 피부와

접수일 : 2014년 10월 14일 / 심사완료 : 2014년 11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8일
*융학과 분석가,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국외환은행 부속의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피부 위에 표출된다. 융은 에로스를 관계 원리로 규정한 바 있는데 피부야말로 에로스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민담과 신화 속에 나오는 짐승 가죽을 뒤집어쓰거나 허물을 벗는 이야기들에서 개성화 과정에서 변환의 의미를 내포하는 피부의 상징성을 읽을 수 있다. 또한 피부질환이 전체정신의 중심으로부터 의식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일 수 있음을 이해할 때 자기실현에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 : 피부 · 분석심리학 · 페르조나 · 자아 · 에로스 · 개성화.

들어가는 말

‘백설공주’나 ‘개구리 왕자’처럼 친숙한 동화 속에서부터 살갗에 대한 묘사는 그 대상에 대한 인상을 구성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함을 보게 된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일차적으로 겉껍질, 사람의 경우 피부를 통해 파악하기 때문에 피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됨은 당연하다.

피부 질환은 흔히 보게 되는 병이지만 치료가 쉽지 않다. 원인도 분명치 않고 잘 낫지 않는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오래 끄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대체요법이나 근거가 희박한 민간 처방들이 난무하기도 한다. 사실 환자들 자신도 병의 경과에 약 뿐 아니라 생활 전체가 관여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술 마시면 나빠지고 잠이 부족하고 피곤할 때 악화됨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치명적인 병이 아닌 한 삶 전체를 바꾸어 보겠다는 결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 약물 요법은 치료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약만으로 쉽게 낫지 않는 병은 인격과 생활 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성찰을 요구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생활 방식의 변화를 실천하는 능동적 자세, 의지와 인내가 뒤따라야만 한다. 피부 문제는 그런 질환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써 병에 걸린 개인에게 특별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 진단과 치료를 받지만 그건 질병행동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치료 방식들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피부 질환에 걸렸을 때 우리나라 환자들은

특히 내부 장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것이 피부에도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경향이 많다. 한의학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한편 으론 눈에 드러나는 현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배후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피부병에 관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질병관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고 발병과 경과에 정서적 요인들의 관련성이 깊다. 병에 대해서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피부에 대한 관념에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된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드러나며, 한 개체를 싸고 있는 보호막이라는 점에서 경계 영역으로서의 다양한 잠재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일 것이다. 한 개인의 내면에 있는 내용들이 피부에 투사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문화로써 표현되는 집단의 정신이 피부에 각별한 의미를 부과할 수도 있다. 피부는 몸과 마음이, 개인과 세계가, 그리고 과학과 문화가 만나는 자리가 된다.

융은 자신의 체험과 정신과 의사로서의 치료 경험을 통해 집단적 무의식의 존재와 인간 정신의 객체성을 발견했고 객체정신의 인도 아래 전체성을 향해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보았다. 융의 발견은 인류의 정신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획기적으로 확장했고 정신 치료 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에 있어서도 독창적이고 풍요로운 토대를 제공했다. 또한 융의 사상은 자연과학과 심리학이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그는 무의식에 물질세계와 연결되는 어떤 체계가 존재할 거라는 가정을 세웠으며 정신과 물질이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세계(unus mundus)를 상정했다.

본 논문은 피부에 대한 심리학적 탐구이다. 피부에 대해 관찰되는 현상, 관념, 정서적 연결성 등을 정리해 보고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집단 무의식의 원형적 작용은 인류의 삶과 문화 양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다. 피부에 대한 우리의 느낌, 반응, 행동들 속에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정신적 근원으로부터 나온 무의식의 표현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 피부의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피부 위에서 실현된 원형의 흔적을 작은 부분이나마 붙잡아 보려는 시도으로써 본 논문을 계획했다.

논문에서는 먼저 의학에서 파악한 피부에 대한 지식을 간단히 요약하고 의학적 관점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할 통합적 이해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융의 견

해를 소개한다. 이어서 피부와 관련해 관찰되는 심리사회학적 현상들을 살펴 보고 끝으로 피부에 대한 인간의 경험들을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정리하도록 하겠다.

의학에서 보는 피부

1. 피부의 구조와 기능¹⁾

피부는 신체의 장기 중 가장 큰 기관으로 전체 면적이 1.8m²에 달하며 체중의 16%를 차지한다. 외관상으로는 평평하고 단순한 듯 보이지만 다양한 세포들과 혈관, 림프관, 신경 등이 분포되어 있는 복잡한 미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체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 항상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모발, 손발톱, 땀샘, 피지샘 등의 기관도 피부에 속한다.

피부는 크게 나누어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 3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표피는 신체 외부에 덮고 있는 층으로 주로 각질형성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진피는 피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표피 바로 아래서 피부 구조를 지지하는 결합조직체로서 작용한다. 피하지방층은 진피층 아래서 충격을 흡수하여 몸을 보호하고 영양저장소로서도 기능한다. 피하지방층 아래에 근육과 뼈가 위치하게 된다.

피부는 물리적 자극이나 기계적 손상,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벽으로서 기능하며 미생물 감염에 대해 방어하고 체액 소실을 막아준다. 체온 조절과 비타민 D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장기이며 통증, 온도, 촉각, 압력과 진동 등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러 유형의 특화된 감각수용체들이 외부 자극이나 피부 상태에 대한 신호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한다.

2. 피부에 대한 심리신경내분비면역학적 이해²⁾

피부 질환 중 생명을 위협하는 위중한 병은 많지 않지만 만성화하는 경우가

1) 주로 다음의 두 책을 참조하였다.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2008) : 《피부과학》, 여문각, 서울, pp11-47.

Gawkrodger DJ(2008) : *Dermatology An Illustrated Color Text*, Churchill Livingstone (이민걸 외 역), 군자출판사, 서울, pp2-11.

2) Psychoneuroimmunology, psychoneuroendocrinology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한국어로는 psycho-를 심리 혹은 정신이라고 번역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심리-'로 옮겼으며 내용상 두 분야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심리신경내분비면역학으로 묶어서 기술하겠다.

많고, 발생 원인이나 경과에 유전적, 환경적,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치료도 단순하지가 않다. 최근의 새로운 이론인 심리신경면역내분비학은 스트레스 등의 감정적, 심리적 요인과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증상을 유발하는지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심리적 자극이 발생하면 뇌의 전전두부에서 인지해 변연계로 전달되고 여기서의 해석에 따라 정서 변화가 유발된다. 동시에 교감신경계와 CRF(corticotropin releasing factor) 신경세포, 그리고 HPA축(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에 신호를 보내 여기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이나 신경호르몬들이 피부를 비롯한 신체 기관에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 세포들이 분비하는 cytokine은 면역기능의 조정자로서 염증 반응에 있어서 매개 역할을 한다.³⁾

피부는 외부와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면역반응들이 자주 표현되는 기관이고 미생물,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과 같은 유해한 요인들을 막아내기 위한 효율적이고 우수한 방어기구가 필요하다. 이전의 견해로는 피부는 단순히 면역반응의 표적기관이었는데 최근에는 피부 자체가 면역반응을 효과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개체를 방어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능동적인 면역기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⁴⁾ 피부는 내부와 외부 환경 사이에서 1차 방어 장벽으로서 인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방어하며, 이를 위해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작용한다. 그리고 여러 매개물질들을 통해 이들과 양방향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중추신경계에서든 피부에서든 이런 물질들의 조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증상이 발현된다는 사실이 아토피 피부염 등 일부 만성질환에서 확인되고 있다.⁵⁾ 심리적 상태는 생화학적 매개물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질병 발생이나 경과에 영향을 미친다.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려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거나 치유반응을 방해해 질병의 경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⁶⁾

3) 대한스트레스학회(2013) : 《스트레스 과학》, 한국의학, 서울, p65.

4)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2008) : 《피부과학》, 여문각, 서울, p64.

5) Suarez AL(2012) : "Psychoneuroimmunology of Psychological Stress and Atopic Dermatitis : Pathophysiologic and Therapeutic Updates," *Acta Derm Venereology*, 92 : pp7-15.

6) Millard Leslie(2005) : "Psychoneuroimmunology," *Psychodermatology*(Ed. by Walker C et 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p21.

3. 의학적 이해의 한계와 정신/물질에 대한 융의 견해

몸과 마음이 연관되어 있다는 관념은, 근대 이후 과학의 발달로 물질과 정신을 이원론적으로 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온 통념이었다. 19세기 이후로 인체에 대한 생리학, 생화학적 지식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의학은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 보기보다는 생물학적 차원에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의학의 세분화, 전문화 추세는 인간을 전체로서 보는 관점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융은 정신과 물질이 하나의 세계에 포괄되어 있고 동일한 하나의 두 측면이라고 보았다.⁷⁾ 그러나 성급하게 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신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먼저 정신 영역에 대한 탐구가 이뤄져야한다고 믿고 정신 현상에 집중해 연구했다. von Franz에 의하면 융이 정신을 생리 과정의 부수현상으로 보는 당대의 물질주의적 편견에 대항할 필요가 있었고, 정신과 물질 각각의 영역이 충분히 연구되면 연관성은 자연스레 밝혀지리라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⁸⁾

융은 “psyche”의 구성 요소로 의식, 무의식 외에 정신 비슷한 psychoid(정신양 精神樣) 시스템을 가정했다. 의식은 자아 콤플렉스가 연관되어 있어 인식 가능한 영역이고, 무의식은 알려지지 않은 정신 영역이지만 의식의 문턱을 넘어 오면 의식으로 통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의식에 있던 내용이 꿈을 통해 표현되었을 때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하면 의식으로 통합된 것이다. 그러나 정신양 기능은 의식으로 접근이 안 되는 절대적으로 무의식적인, 본질상 알 수 없는 것이다. 융은 이것을 정신 영역의 일부로서, 정신적 요소가 무기물질과 혼합되는 듯 보여지는 영역으로 상정했다.⁹⁾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가청주파수가 있고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만 시각적 인지가 가능하듯이 정신에서도 인식이 가능한 한계 범위가 존재할 것이라고 융은 추측했다. 그리고 이 정신적 도수의 양쪽 끝에 정신양 과정을 가정했던 것이다.¹⁰⁾ 융은 정신양이라는 용어으로써 정신과 유사하지만 정신 고유의 성질 그 자체는 아닌, 무의식 영역이면서 물질의

7) Jung CG(2002) : “정신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고찰”, 《원형과 무의식》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솔, 서울, p81.

8) von Franz ML(1992) : *Psyche & Matter*, Shambhala, Boston, p2.

9) von Franz ML(1992) : 앞의 책, p4.

10) Jung CG(2002) : “정신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고찰”, 《원형과 무의식》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솔, 서울, p33.

차원과 연결되는 어떤 체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개념은 정신과 물질 사이의 연결성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융의 가설에 따르면 정신은 본질적으로 맹목적 충동과 의지, 즉 선택의 자유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충동이 지배적인 곳에서 정신양 체계가 시작된다. 정신양 체계는 무의식 영역에 속하지만 무의식 자체라고 할 수는 없다. 무의식에는 정신양 기능 외에도 관념이나 자의적 행동 등 의식 과정과 유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¹¹⁾

융은 자연과학이 유일한 기초로 삼는 인과성 외에 비인과적 동시성이 또 하나의 원리일 수 있음을 주장했다.¹²⁾ 서로 이질적이며 인과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건들이 의미상의 일치를 가지고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성 현상은 시간이나 공간이 상대화되는 집단적 무의식의 토대 위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물질과 정신이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피부의 사회심리학적 측면

1. 일상 언어에 나타난 피부의 사회심리학적 측면

언어는 그 사회 집단의 사고방식과 정서적 경향, 행동 유형이나 문화적 취향을 담아내는 대표적 매개자이다. 일상의 언어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피부와 관련된 관용적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오래 전부터 피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내용을 투사하며 살아왔는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피부에 와 닿는다’란 말은 몸소 체험한 것처럼 분명하게 알 것 같다는 뜻으로, 감각을 통한 인지과정에 있어서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낸다. ‘뜨겁다’, ‘차다’는 본래 피부를 통해 느끼는 온도 감각인데 정서적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인다. ‘낮이 두껍다’, ‘낮 뜨겁다’, ‘낮 간지럽다’ 등의 표현에서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부끄러운 감정을 얼굴을 통해 드러내는 문화적 습성을 엿볼 수 있고 ‘낮(얼굴)이 넓다’나 안면이 있는 사이일 때 쓰는 ‘낮이 있

11) Jung CG(1969) : CW 8, “On the Nature of the Psyche”, *The Structure and the Dynamics of the Psyche*,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pp183-184.

12) Jung CG(2002) : “동시성에 관하여”, 《원형과 무의식》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숲, 서울, p381.

다'란¹³⁾ 표현에서는 얼굴이 대인관계 속에서 한 개인을 대표하는 말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울그락불그락,' '하얗게 질리다,' '파랗게 질리다' 등의 표현은 피부 색깔을 통해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안색,' '낮빛' 등은 기분 뿐 아니라 신체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탈피하다'라는 표현은 껍질을 벗는다는 말로써 기존의 상태나 행동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2. 피부질환과 사회심리

심리사회적 요인들은 피부병의 발생에 자주 관여되며, 거꾸로 피부병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심리사회적으로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피부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가벼운 문제라 할지라도 환자들에게는 심각한 스트레스가 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만성적인 피부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경험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 연구에서 모의 환자들의 한 쪽 뺨에 화염상 모반¹⁴⁾ 분장을 만들고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게 하는 실험을 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의 환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거나 병변 쪽으로 서있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¹⁵⁾ 최근 한 일간지 기자는 특수 분장으로 팔과 다리에 진선¹⁶⁾ 병변을 만들어 몇 시간 동안 지내면서 환자들이 어떤 경험을 할지 몸소 겪어 보는 실험을 했다. 가게나 길거리 어디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다녔고 짐질방에서는 입장이 거부되었다. 환자들은 취업과 학업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에서 제약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대한건선학회 조사에 의하면 환자의 39%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고 44%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¹⁷⁾

피부 질환에 대해 낙인을 찍는 태도는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1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 사이트 stdweb2.korean.go.kr/section/idiom_list.jsp.

14) 태어날 때부터 붉은 반점이 주로 얼굴 한쪽에 나타나는 피부 질환으로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양성종양의 일종.

15) Kent G(2005) : "Stigmatization and skin condition," *Psychodermatology*, (Ed. by Waker C et 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pp45-46.

16) 전신에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다양한 크기의 붉은색 발진에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 있는 특징을 보임.

17) 2014년 8월 26일 조선일보 A12면 기사.

다.¹⁸⁾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설명들이 있으나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을 향해 보이는 회피 경향은 순간적인 동일시 현상으로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과 자율적이지 못함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라는¹⁹⁾ 해석은 되새겨 볼 만하다.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투사 현상이 피부 병변에 대해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신 안에 있는 열등한 면, 취약한 면을 인식하고 통합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인류는 자기의 어두운 면을 덮어씌울 대상을 여전히 밖에서 찾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피부의 상징적 의미

1. 경계로서의 피부 : 페르조나와 피부

융은 자아가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발전시킨 태도를 지칭하기 위해 페르조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페르조나는 관계기능으로서 외부 세계라는 환경을 전제로 하는 기능 콤플렉스일 뿐 전체 인격은 아니다. 그런데 페르조나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외부 세계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면 인격의 전체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내면에 감춰진 생동감 넘치는 자율성과 활기가 억압될 수 있다.

피부가 사람의 신체의 최외측에 존재하는 물리적 껍데기라면 페르조나는 인격의 가장 바깥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신의 외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피부는 페르조나가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는 공간이 된다. 이부영은 페르조나에 해당하는 우리 말로 ‘체면’, ‘얼굴’, ‘낯’ 등을 들었다.²⁰⁾ ‘감히 뵈을 낯이 없다’, ‘얼굴을 들 수 없다’, ‘어디다 낯을 들고 다니느냐’ 등의 표현에서 얼굴이 페르조나를 대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여서인지 한국에는 체면과 낯을 연관시킨 표현이 유난히 많다. ‘낯뜨겁다’, ‘낯간지럽다’, ‘낯이 두껍다’ 외에도 ‘낯깎이다’, ‘낯나다’,²¹⁾ ‘낯부끄럽다’ 등 체면을 얼굴 피부에 결부시킨 표현들이 여럿이다.

어원이 말해주듯 페르조나는 가면이다. 원시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18) Walker C, Papadopoulos L(2005) : *Psychodermat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pp6-7.

19) Walker C, Papadopoulos L(2005) : 앞의 책, p4.

20) 이부영(2011) :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p97.

21) 체면을 세우다, 생색을 내다. (새국어사전 3판 두산동아)

지구상의 각 지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가면이 사용되어 왔다. 원시시대에는 죽인 동물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혹은 동물의 주술적 능력을 입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물의 가면을 썼을 것이다. 의례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성인식이나 비밀 결사 입단식에 특별한 가면을 사용하는 풍습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곳들이 발견된다.²²⁾ 주술사나 광대 등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선택받은 존재들은 일반 대중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외관을 갖출 필요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상이나 가면, 그리고 문신 등이 이용되었다. 본래의 피부 위에 제작된 피부를 덧입은 것이 가면이라면 문신은 피부 밑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함으로써 변화를 입은 피부라고 할 수 있다. 가면과 마찬가지로 문신도 고대로부터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문신은 오천 년 전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석기 시대 인간의 피부에서 관찰된 문신이다.²³⁾

문신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악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혹은 미적인 목적으로도 행해졌지만 신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많이 사용되었다.²⁴⁾ 결혼 유무나 성인인지의 여부를 표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소년들이 성인의 일원임을 인정받기 위해 치러야 하는 통과의례에서 문신이나 흉터 등을 피부에 만드는 전통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청소년들이 그룹의 결속력을 보증하는 표시로 문신을 새기기도 한다. 폭력 집단에서 집단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맹세로 문신을 만드는 것은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다. 문신은 피부가 집단에서의 정체성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는 게시판으로 사용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페르조나는 본질상 집단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융은 집단성이 지배적이었던 원시인들의 정신세계에서 개인이라는 인격의 발전을 위해서 특출난 개인의 출현이 요구되었고 마술적 위엄이란 요소가 작용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²⁵⁾ 메디신맨이나 추장은 가면이나 특별한 장식을 함으

22) Encyber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23) 니나 자블론스키(2012) : 《스킨》 (진선미 역), 양문, 서울, p39, p204.

1991년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국경 지역 알프스산을 등산하던 등산객들이 발견했다. 냉동 상태로 있어 수천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고 하며 학자들은 '외치'란 별명이 붙은 이 '냉동인간'을 냉동 상태로 유지하며 상세히 연구했다.

24) 조현철(2003) : 《문신의 역사》, 살림, 서울, pp23-45.

25) Jung CG(2004) : 《인격과 전이》 (융 기본저작집3), 숲, 서울, pp46-48.

로써 비밀스런 능력을 소유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형성된 페르조나는 집단의 대중과는 격리된 특별한 개인임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집단적인 타협의 산물임을 용은 역설한다. 마술적 권위는 그 개인에 속한 속성이 아니다. 한 사람의 권력의 도나 능력으로 구현되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인물을 필요로 하는 대중의 요구와 복종의지가 동시에 작동되므로 실현가능해지는 것이다. 대중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강력한 인물이 진정한 개성과 집단으로부터 부여받은 페르조나의 속성을 혼돈할 우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피부색을 바꾸려 시도하거나 문신을 새기거나 특별한 치장을 하면서 개성의 표현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한 개인의 개성인지, 혹시 개성적이라고 믿게 만드는 가면일 뿐 사실은 집단의 페르조나가 배후에서 작동되고 있는 건 아닌지 구분하기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인간은 사회 집단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을 통해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헌함이 마땅하다. 특히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적절한 페르조나를 형성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²⁶⁾ 그러나 페르조나라는 껍데기에 둘러싸여 풍부한 가능성과 개성이 억압되거나 무시된다면 진정한 자신의 삶을 펼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페르조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삶의 과정에서 심각한 난관에 부딪쳐 이전의 대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혹은 분석치료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²⁷⁾ 지금까지는 자연스러웠던 역할이나 태도가 의문시되고 방향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페르조나 문제의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무의식으로부터 떠올라오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다면 진정한 자신으로 다가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던 체면, 얼굴, 낮을 포기함으로써, 혹은 재정립함으로써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활력과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갈수록 바깥에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 피부 관리, 성형 등이 사회 현상이 되어가고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말 자체를 진부하게 여길 만큼 시각적인 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세태 속에서 얼굴의 피부 한 꺼풀보다는

26) 이부영(2011) :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p100.

27) Jung CG(2004) : 《인격과 전이》 (융 기본저작집3), 숲, 서울, pp60-62.

내적인 인격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2. 이미지로서의 피부 : 자아와 피부

경험, 생각, 감정, 욕구, 바램 등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알고 느끼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의식을 구성하며 그 중심에 자아가 있다. 자아는 의식을 강화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무의식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무의식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²⁸⁾

자아 의식에는 정신 영역을 통해 형성된 것 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보고 만짐으로써 인식되어진 것들이 포함된다. 몸의 표면을 이루는 피부는 자아상, 신체상이 성립되어 가는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피부이며 피부를 통해 타인이나 사물과 접촉함으로써 자신에 대해서나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부가 신체의 경계가 된다고 한다면 자아는 정신적 주체로서의 경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자아가 약할 때 외부적 요인에 휘둘리기 쉽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성이 커지듯, 피부가 약하면 외부 자극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해 의학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신체의 보호막으로 작용하는 피부의 각질층 기능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가려움증, 발진 등이 그런 문제에 속한다.

자아 문제가 피부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피부 문제에 대해 반응하는 양태는 자아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성형외과 의사였던 맥스웰 몰츠는 흉터 제거와 같은 성형 수술 후 많은 환자들에게서 성격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지만 성공적인 수술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관찰하면서 수술에 의한 외모의 교정과 동시에 손상된 자아 이미지의 수정이 필요함을 제안했다.²⁹⁾ 그는 성형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태도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모색했는데 임상 경험을 통해 그가 발견한 ‘마음 속의 생명본능,’ 혹은 ‘개개인에게 잠재해 있는 자연 발생적 창조적 메커니즘’³⁰⁾은 의미상 용이 제안한 자기(Self)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아는 진정한 자신이 되도록 이끄는 자기(Self)의 인도 아래서만 변화할 수 있다.

28)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p32.

29) 맥스웰 몰츠(2003) : 《성공의 법칙》 (공병호 역), 비즈니스북스, 서울, p50.

30) 맥스웰 몰츠(2003) : 앞의 책, pp52-53.

인생의 과정 중 자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요구되는 단계들이 있다. 소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야 할 시기에 원시 사회는 성인식을 시행함으로써 그 극적인 변환을 완수하도록 했다. 동굴이나 숲 속으로 보내져 격리되었고 할례, 문신 등의 신체적 고통이 주어지면서 “신참자를 원래의 모자동일성, 또는 자아-자기의 동일성이라는 마음 속 깊은 곳까지 퇴행시킴으로써”³¹⁾ 상징적인 죽음과 재생을 경험하게 했다. 정신적 죽음에 이르렀던 경험과 신체에 남겨진 가시적인 흔적은 그가 거듭난 인간임을 자기 자신과 공동체 전체에 확실하게 천명하는 징표가 된다.

신화의 영웅 중에는 특별한 피부를 가짐으로 해서 불사의 몸이 되는 영웅들이 있다. 심리학적으로 영웅은 의식성과 자아를 획득한 정신 발달 단계를 상징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우스나 게르만 신화의 지그프리트 같은 영웅의 그 무엇으로도 상처 입힐 수 없는 피부는 보통 사람들이 결코 가지지 못하는 강인함, 뛰어난 상징이다. 그들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인류로 하여금 자아를 강화시키고 발달된 의식성으로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는 이미지들이었다.

피부과 의사이면서 융 분석가였던 Anne Maguire는 피부병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이 불의 원형과 깊은 연관성을 드러낸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피부의 증상은 붉은 발진, 열감, 가려움, 부종, 통증 등이다. 이들 증상의 기본 병리는 염증 반응이다. 염증 반응이란 본질적으로 반대되는 두 작용이 충돌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재생과 치유이다. 피부가 빨갱게 변해 가렵고 화끈거릴 때 긁거나 문지르고 호호 불면서 증상을 완화시키려 하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불을 지피는 행위를 연상시키며 리비도의 정제와 폐색을 극복하기 위한 반응과 연결될지 모르겠다는 것이 Maguire의 가설이다.³²⁾ 피부병에 수반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의식성의 확대라는 불의 원형적 상징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자아의 확대와 새로운 의식성을 요구하는 무의식의 작용이 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피부병의 심리학적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31) Henderson JL(2013) : “고대신화와 현대인”, 《인간과 상징》, (Jung CG 엮음, 이부영 역), 집문당, 서울, p143.

32) Maguire A(2004) : *Skin Disease*, Free Association Books, London, pp176-182.

용 학파의 분석가인 Ulanov는 옷(poison ivy)에 의한 피부염으로 고생하던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 문제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란 의문을 갖게 되고 이후 10년에 걸친 자기 분석의 경험을 책으로 써 냈다.³³⁾ 그녀는 과거의 기억들과 자신의 감정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기 시작했고 꿈을 분석하고 명상을 하면서 옷에 의한 피부염이 더 넓은 의식성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자기(Self)의 작용을 인식하도록 인도하는 콤플렉스라는 걸 발견한다. 자신이 무시해 온 그림자 영역이 인격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신체로 방출된 것이 옷 알레르기라는 형태로써 피부 위에 표현되었다는 이해에 이른 것이다. 그녀는 자기(Self)가 자아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 논리와 질서가 있는 말이나 이미지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우울한 감정, 대낮에 보면 덧없어 보이는 꿈을 통한 것이라고 쓰고 있다. 분석의 의의와 함께 그 어려움을 웅변하는 말이다.

인간은 자신의 몸 위에 무언가를 표현하려는 뿌리 깊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원시 시대로부터 피부에 그림을 그리는 장식을 시작했고 모든 대륙의 원주민 문화에서 문신이나 피어싱, 흉터 만들기, 낙인 만들기 등의 행위가 관찰된다.³⁴⁾ 현대에도 신체 페인팅이나 문신 만들기가 행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대담하고 다채로운 형태의 장식이나 문신이 등장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고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에 신체에 특별한 장식을 가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겠다는 의도,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도록 파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는 욕망을 신체 표면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날로 과감해지는 성형수술이나 피부 조작과 함께 자연을 조작과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물질주의적 태도와 같은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된다. 환경 파괴와 자연 훼손을 서슴지 않는 목표지향적 개발지상주의는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신체조차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대상, 혹은 목적을 위해서 어떤 변화든지 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현대의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자아 의식의 비대증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집단의 미적 전범에 맞추기 위해 시행되는 성형수술은 ‘개성’의 발휘라기보다는 오히려 현대의 물개성성과 집단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지 우려된다.

33) Ulanov AB(2001) : *Attacked by Poson Ivy*, Nicolas-Hays, Inc., York Beach.

34) 니나 자블론스키(2012) : 앞의 책, p211.

3. 접촉면으로서의 피부 : 에로스와 피부

에로스와 피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에로스를 단적으로 사랑이라 할 때 그 사랑의 내용을 어떤 것으로 고려하든지간에 피부 접촉은 크나큰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에로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그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에로스에 대해 최초로 철학적 탐구를 시도한 사람은 플라톤이었다.³⁵⁾ 플라톤은 그의 저서 <향연>에서 인간은 원래는 팔과 다리가 네 개씩인 존재였는데 반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반쪽을 그리워하며 다시 합쳐지기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에로스의 기원을 우화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원래 한 몸이었던 반쪽을 불러 온전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사랑의 근원이며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인간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이다. 또한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아름다움과 아름다움 안에서의 창조, 즉 불멸성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 의미를 넓혀서 해석한다. 융은 논문 <유럽의 여성>에서 에로스란 관계 맺고 연합시키는 원리라고 규정하면서 ‘심혼의 관계’라는 말로 요약했다.³⁶⁾

관계 맺기에 있어서 몸의 접촉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느끼는 감각 중에서 촉각이 가장 원초적인 감각일 것이다. 인간은 아주 어릴 때부터 피부 접촉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사물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시작한다. ‘접한다’, ‘피부에 와 닿는다’란 말에서 보듯이 접촉은 인지적 자극 뿐 아니라 공감과 이해에도 필수적이다. 유년기에 신체 접촉이 박탈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뿐 아니라 신체 성장에도 장애를 겪는다.³⁷⁾ 에로스는 생명력이며 생명 현상을 더욱 풍성하게 확대시키는 원동력이다. 피부 접촉은 에로스의 가장 구체적인 체험이다. 핵가족을 지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한국 사회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관계에 대한 갈망, 정서적인 나눔과 신체 접촉에 대한 욕구 때문일 것이다.

35) 도정일 엮음(2013) : “에로스의 기원과 성질”, 《인간의 가치 탐색》,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서울, pp78-90.

36) Jung CG(2004) : “유럽의 여성”, 《상징과 리비도》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숲, 서울, p46.

로고스와 에로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마리안느 쉬스 엮음, 한오수 역의 《사랑에 대하여》 47쪽을 참조 바람.

37) 니나 자블론스키(2012) : 앞의 책, p149.

한국의 전통 사회는 신체 접촉에 대해 매우 경계하는 문화였고 더욱이 이성 간에는 어릴 때부터 가까이 앉지도 말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요즘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남녀가 스스럼없이 몸을 밀착하는 광경을 목격하는 일이 드물지 않고 거리 곳곳에서 마사지 솥이란 간판을 볼 수 있다. 접촉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숨길 수 없는 본능임을 말해주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신체 접촉은 성 관계와 자손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지만 이성간을 넘어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까이 연결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접착제로 작용한다. 연인이나 부모 자녀 사이에서 뿐 아니라 직장이나 공적인 사회 관계 속에서도 소통이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행해지는 친밀한 접촉을 스킨십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심지어 국제 관계 영역에서 ‘스킨십 외교’라는 말까지 대중매체에 등장한다. 모든 관계는 “뭉고 푸는 데에 뛰어난 에로스의 원리”를 기초로 하며 피부야말로 그런 에로스가 구현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다.

신체 접촉이 건강과 행복에 중요하며 관계를 증진시키는 요소라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명백해 보이지만 과학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기전을 규명해 내고 있다. 피부의 촉각 및 압력 수용체들이 자극을 받으면 일련의 반응들이 일어나며 중추신경계로 전달되고 엔돌핀 등 화합물의 분비가 촉진되어 통증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며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감소된다는 것이다.³⁸⁾ 피부에 주어진 부드러운 자극은 감각계와 신경계를 통해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동시에 면역체계를 활발하게 해 개체의 생명력을 증대시킨다. 출산 시 자궁 수축에 중요한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마사지에 의해 분비가 증가된다. 엄마가 신생아와 피부와 피부를 맞대고 안아 주며 아기를 돌보는 소위 ‘캥거루 케어’는 피부 접촉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좋은 예다. 신체 장기가 충분히 성장되지 않아 면역력이 약하고 질병에 취약한 미숙아들에게 캥거루 케어를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낮아지고 옥시토신이 증가되어 아기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한다. 감염과 질병에 취약한 미숙아들 중 캥거루 케어를 받은 아기들에서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케어만 받은 아기들에서보다 감염 발생률이 훨씬 낮다니 놀라운 일이다.³⁹⁾

38) 니나 자블론스키(2012) : 앞의 책, pp155-156.

39) 중앙일보 2014년 1월 20일 S7면 기사.

동양의 유교 문화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얼굴빛을 논하는 경우가 있다. 논어(論語)에 나오는 몇 구절을 통해 이에 대한 공자의 가르침을 살펴보겠다. 논어 학이(學而) 3장에서 공자는 교언영색 선의인(巧言令色 鮮矣仁)이라 하여 약삭빠른 말과 좋은 뜻이 꾸미는 얼굴에는 인(仁)이 드물다고 했다.⁴⁰⁾ 공야장(公冶長) 24장에서도 “약빠른 말, 좋은 뜻이 꾸미는 얼굴, 환심을 사기 위한 공손을 좌구멍이 부끄러워하거나와 나도 그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했다.⁴¹⁾ 향당(鄉黨) 3장에 따르면 임금이 불러 내빈의 접대를 명할 때 공자의 얼굴에 받드는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며 5장에서는 공자가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가 그 나라의 임금을 만날 때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 얼굴빛으로 변하시고, 발은 뒤꿈치로 옮겨 가시는데 무엇인가를 더듬어가는 것같이 하셨다. 정식 연회석상에서는 점잖은 기색을, 사적인 면회엔 즐거운 기색을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⁴²⁾ 남의 안색을 살펴 비위를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 만나는 대상에 따라 태도와 행동, 안색을 적절하게 하는 행동을 공자가 보였음을 전하는 귀절들이다. 그러나 속마음과 겉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매우 혐오했다. 양화(陽貨) 12장에 보면 “얼굴빛은 위엄이 있으면서 속이 유약한 것은, 그것을 영세민들에 비유한다면, 마치 벽을 뚫고 담을 넘는 도둑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여⁴³⁾ 속마음과 외부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른 것을 배격했음을 알 수 있다. 또 향당 4장의 “임금님이 나와서 서시는 자리를 지나가실 적에는 얼굴빛이 달라지시고, 발걸음이 빨라지시고, 말씀은 마치 말씀이 모자라시는 것같이 멈추셨다… 나오실 적에는 층계를 한 단 내려오셔서 얼굴빛을 풀으셨는데 기꺼우신 것 같으셨다.”⁴⁴⁾ 라는 구절에서 왕 앞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견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정을 물러난 후 얼굴빛을 풀고 기꺼워했다는 구절에 이르면 권력 의지와 에로스는 서로 대극이라는 용의 말이 생각난다.⁴⁵⁾ 정치는 권력의 영역으로, 에로스의 억압을 요구한다. 공자 역시 권력의 영역인 정치 전선을 벗어났을 때 자연스런

40) 차주환 역(1984) : 《논어》, 을유문화사, 서울, pp16-17.

41) 차주환 역(1984) : 앞의 책, p69.

42) 차주환 역(1984) : 앞의 책, pp128-129.

43) 차주환 역(1984) : 앞의 책, p241.

44) 차주환 역(1984) : 앞의 책, p129.

45) Jung CG(1953) : CW 7, *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p53.

감정을 허용할 수 있었고 이같은 상태를 즐거워했던 것 같다.

4. 변환의 상징으로서의 피부 : 개성화와 피부

분석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무의식이 정신의 근원이며 무한한 창조적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토대라고 본다. 그리고 한 개인이 그 자신이 되도록 하는, 전체를 지향하는, 원형으로서의 자기(Self)가 내재되어 있어 그의 가치와 의미를 실현하고 전체가 되도록 삶의 과정을 주재한다고 이해한다. 자기실현은 용이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삶을 관찰하면서 수립한 가설로서 분석심리학의 독특한 개념이다. 자기실현, 다른 말로 개성화는 일회적이거나 단속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지속되는 생명 과정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극적인 체험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나무가 자라듯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기도 한다. 갈등이 의식을 넓혀주는 첩경이 되기도 하고 질병이 새로운 인식의 기회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분석심리학의 관점으로 피부를 조명해보는 시도의 끝으로 자기실현이라는 맥락 안에서 피부가 어떤 이미지와 의미를 띠고 출현되는지 보고자 한다. 사실 앞에서 다룬 페르조나, 자아, 에로스와의 관계에 관한 모든 내용들도 자기실현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건과 체험들이 궁극적으로는 자기실현으로 이어지는 의미를 내포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약 성서는 피부병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는 한 장군의 일화를 전하고 있다.⁴⁶⁾

시리아의 군 사령관 나아만은 왕에게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큰 인물이었다.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 전쟁 때 붙잡혀와 그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던 어린 여종으로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한 예언자가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예언자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간다. 예언자는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 물에 몸을 일곱 번 씻으면 병이 나을 거라는 말만을 전한다.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들은 대로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자 피부가 어린 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졌다.

장군의 튼튼한 갑옷 속에서 썩어가는 피부는, 전장에서의 영웅이나 백성의 존경을 받는 인품이라는 페르조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무의식의

46) 구약성서 열왕기하 제5장 1절-19절.

로부터의 요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나이만에게 불치의 피부병은 새로운 의식의 획득을 요구하는 일종의 소명이었다. 해결의 실마리는 무시되던 영역, 인정받지 못하던 측면인 여성, 아내의 어린 여종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무의미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언자의 처방에 복종할 수 밖에 없다. 치료되기 위해서는 비천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은 무의식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장군으로서의 강력한 남성성은 모체의 자궁과도 같은 물 속에 들어감으로써 융합되고 새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재탄생을 위한 세례라고 할 수 있다. 성서의 이 이야기는 피부병을 계기로 한 인간이 신을 발견하는 구원의 사건이었고 그의 개성화를 이끌어가는 자기(Self) 의도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임금 세조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세조는 단종의 모후인 현덕왕후가 나타나 저주하며 침을 뱉는 꿈을 꾸고 지독한 피부병에 걸렸다. 월정사와 상원사를 찾아 불공을 드리며 낫기를 발원하던 세조는 계곡에서 목욕을 하다가 동자승의 모습으로 나타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피부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⁴⁷⁾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죄책감과 불안이 피부병으로 드러났는지 모른다. 고통은 자기의 진실한 내면을 돌아보게 한다. 세조에게는 잠시 왕좌를 떠나 권력이나 정치와는 무관한 자연의 세계 안에서 자기와 대면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깊은 산 속의 사찰에서 드리는 참회의 불공은 심리학적으로는 내향화, 무의식과의 대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때 나타난 문수보살은 세조의 극심한 번뇌, 권력욕과 죄책감, 병의 고통이 뒤범벅되어 만들어진 내면의 혼돈, 그 한가운데로 비쳐 든 지혜의 빛, 자기(Self)의 현현(顯現)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자승은 어린이 원형상으로, 어린이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 의식과 무의식의 인격적 요소를 합성하는 전체성의 실현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다.⁴⁸⁾

이들의 예에서 피부병의 치유는 단지 신체적 증상의 소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몸의 병이 낫는 동시에 새로운 차원에서의 영혼의 열림, 각성이 일

47) 상원사 홈페이지 내 <세조와 문수보살 이야기>에서 참조함.

48) Jung CG(2002) : “어린이 원형의 심리학에 대하여”, 《원형과 무의식》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서울 p253.

어났다. 그것은 전체 인격으로 다가가는 도상이었다. 깨끗해진 피부는 정신적 회복과 치유, 재생의 상징이기도 하다.

융은 자신의 심리학 이론의 역사적 기반을 연금술에서 찾았다. 의식이 무의식과 대면하면서 인격의 전체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 연금술에서 물질의 변환을 목표로 실험에 몰두하던 연금술사들의 작업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오히려 온전함을 지향하는 일련의 심리적 과정은 연금술의 각 실험 단계와 대응된다.⁴⁹⁾ 곤경에 처해 일상의 세계에서 버림받음으로써 고통과 우울에 빠지게 되고 자아 대신 무의식이 활성화되는 시기는 연금술에서의 니그레도 상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prima materia*가 혼돈의 덩어리 상태로 존재한다. 자아가 무력함을 받아들이면서 고통스런 상황을 견디며 무의식의 통제 안에 수용되어 새롭게 활동할 가능성을 얻게 되면 정화의 단계인 알베도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어지는 루베도 단계는 우주적 질료가 하나의 형상을 갖추어 탄생하는 연금술 작업의 완결이며 전 인격적 존재로서의 의식성을 획득함을 의미한다.

세조와 나아만의 예에서 피부병으로 고통당하며 현실에서 후퇴해야 했던 상황은 연금술에서의 니그레도, 물에 씻음으로써 병이 나은 사건은 알베도 즉 정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피부병이 낫는 것은 육체의 치유이면서 동시에 영혼의 정화이며 의식의 확장이다. 융은 3세기의 연금술사였던 Zosimos의 환상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면서 연금술에서 물이 가지는 상징성을 자세히 탐구한다. 물은 물질 속에 숨겨진 신으로, 자연 속으로 내려와 자연에 삼켜진 세계영혼 혹은 신적인 이성을 의미했다. 신적인 물에는 변환의 힘이 있어 검은색을 백화시키고 죽은 것을 살리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수, 세례수가 된다.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헤르메스의 그릇, 무의식적인 인간이 의식성을 얻는 자궁이다.⁵⁰⁾

세조와 나아만의 일화에서 피부병은 신비한 물 속에 들어가도록 이끈 조건이었다. 그 안에서 정화되고 새로워져야 할 필요성, 변환에의 요구는 전체 정신의 중심인 자기(Self)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피부는 자기(Self)의 메

49) 이유경(1996) : “서양 연금술의 심리학적 이해”, 《심성연구》, 11(1) : pp 34-36.

50) Jung CG(2004) : “초시모스의 환상”, 《인간과 문화》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 위원회 역), 숲, 서울, pp262-263, p270, pp277-278.

시지를 전달하는 운반자였다.

지금까지 개성화 과정과 관련하여 피부에 대해 물의 정화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한편 신화와 민담에는 허물을 벗는 주제가 많이 있다. 먼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Marsyas 신화를 요약해 본다.

반인반수인 사티로스의 하나인 Marsyas는 상체는 사람이나 하체는 염소의 형상이었다. 아테네 여신이 버린 피리를 주워 그 피리를 불게 된 Marsyas는 자신의 연주 실력이 자만해져서 음악의 신 아폴론이 연주 시합을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결국 신에게 패해 소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산 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형벌을 받는다.⁵¹⁾

프레이저는 Marsyas 이야기는 소나무 아래서 스스로 죽고 부활하는 신 아티스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⁵²⁾ 용도 <Zosimos의 환상>에서 프레이저의 견해와 보고들을 인용하고 있다. Marsyas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창작의 소재가 되어 이탈리아의 화가 라파엘로와 티치아노를 비롯하여 할레, 조르다노, 페루지노, 그 밖에 다수의 작가들의 그림이나 조각품에 등장한다. 아마도 신화 속의 어떤 요소가 예술가들의 무의식에 배열되어 있던 원형적 콤플렉스를 활성화시켜 작품으로 형상화하도록 고무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Zosimos의 환상에 대한 해석에서 용은 가죽이 벗겨지고 해체되는 것은 변환을 위한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다.⁵³⁾ 새로운 영혼의 획득을 위해 낡은 영혼을 상징하는 피부를 벗어 버려야 하는 것이다. 찢기고 절단되고 해체되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신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인간 내면의 드라마를 말해주고 있다. 프레이저는 <황금가지>에서 아티스, 아도니스,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등 죽었다가 부활하는 신들을 기념하는 고대의 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보였던 강렬한 행위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축제에 참가했던 고대인들은 자해하고 울고 환희하며 신들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했다.⁵⁴⁾ 그들은 의례 안에서, 비록 의식하지는 못했겠

51) Grimal P(2009) : 《그리스 로마 신화사전》 (최애리 역), 열린책들, 파주, pp143-144.

52) Frazer JG(2005) : 《황금가지 제1권》 (박규태 역), 을유문화사, 서울, p832.

53) Jung CG(2004) : “초시모스의 환상”, 《인간과 문화》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솔, 서울, pp266-267.

54) Frazer JG(2005) : 《황금가지 제1,2권》 (박규태 역), 을유문화사, 서울.

지만, 고통과 죽음, 그리고 재생의 원형적 사건을 상징적으로 체험했던 것이다.

Marsyas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신과 겨루는 죄를 범하여 벌을 받지만 결과적으로는 재탄생을 위한 성인식을 치른 것이었다. 형벌인 동시에 자신을 바치는 자발적인 양도 행위라는 뜻이다. 죽음의 고통을 무릅쓰면서도 상위의 존재에게 스스로 내어맡기는 극도의 '의지'와 절대적 '수동성', 그 강렬한 모순과 갈등, 이것이 예술가들을 매혹시킨 근원이 아니었을까. 다수의 작가들이 Marsyas의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 것은 허물을 벗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를 갈망하는 예술가 자신의 개성화를 향한 충동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육신을 감고 있는 허물을 벗어버리고 구원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열망이 작품에 나타난 또 하나의 예를 미켈란젤로의 그림 〈최후의 심판〉에서 볼 수 있다.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로 그려진 이 그림에는 최후의 심판 앞에 선 무수한 인간 군상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 예수 옆에 그려진 성인 바돌로매가 들고 있는 허물에 화가는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였던 바돌로매는 산 채로 전신의 살가죽을 벗기는 혹형을 당하며 순교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켈란젤로의 창작에 대한 욕구는 어마어마해서 자연을 모방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의 구상으로 언제나 마음이 들끓었다고 한다.⁵⁵⁾ 한낱 인간이 감히 불멸의 것을 창조하겠다는, 창조주와 겨루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천재 화가는 자신을 형벌을 당하는 자, 신에 의해 살가죽이 벗겨진 자라고 느꼈을지 모르겠다. 그림에서 가죽을 벗기는데 쓰인 칼을 치켜들고 있는 인물 바돌로매의 표정은 복잡하다. 항의와 도전, 분노와 원망 이 모든 감정들이 고통스럽게 얽혀있는 듯 보인다(그림 1). 그러나 가죽이 벗겨진 것이 창조주로부터의 징벌일까? 형벌을 당한 인물은 순교한 성인이다. 가죽이 벗겨져 죽음 당한 건 자발적인 희생이었다.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불탔지만 미켈란젤로는 평생 괴로움 속에서 일했다고 한다. 수도자처럼 무섭게 절제하며 격렬하게 자신을 쏟아 붓는 창작 활동,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켈란젤로의 희생 제의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미켈란젤로는 창조의 내적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평생 독신으로 지냈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소홀히 여기며 미친 듯이 작품에 몰입했다. 그는 대리석 앞에서 무아지경에 빠지곤 했

55) 발터 니그(2012) : 《미켈란젤로》 (윤선아 역), 분도출판사, 왜관, p41.

고 그 안에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형상이 들어 있어 그가 깨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⁵⁶⁾ 마치 연금술사들이 물질에서 혼을 구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작업에 매달렸던 것처럼 미켈란젤로도 자연의 대리석 안에 들어있는 형상을 구하기 위해 일생을 고독한 예술 작업에 바쳤다. 그는 ‘피에타’라는 주제에 천착해 일생동안 여러 형태의 피에타를 조각했다. 죽기 몇 일 전까지도 구십 가까운 노구로 <론다니니의 피에타> 작업에 매달렸다.⁵⁷⁾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란 뜻이다. 미켈란젤로는 살가죽이 벗겨지고 불 속에서 태워지는 듯 처절했던 자신의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는 신을 보았고 여성적 차원의 구원과 위로를 갈망하며 예술 작업 속에 자신을 송두리째 헌신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이는 단지 개인의 창작 의지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이뤄진 예술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의 자아를 압도하는 무의식의 창조적 충동이 예술가를 도구로 삼아 작품으로 실현시킨 예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내적 충동이 너무나 강할 때 예술가는 창조 행위를 강요당하며 인간적인 행복이나 안위마저 희생시키는 충동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⁵⁸⁾

초월의 욕구와 종교적 감수성 사이에서 대극의 긴장과 갈등 속에 던져져 있었던 미켈란젤로의 절망은 구약의 율을 상기시킨다.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소유를 잃고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나 잿더미에 앉아서 웅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굽고 있는 율, 그는 인간으로서 도달하기 어려운 도덕적 수준에 이른 “흠이 없고 정직한 의인”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고 주변의 비난과 조롱까지 더해 극한의 고난에 빠지지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19장 26절) 하면서 물러서지 않는다. 전능한 창조주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자신이 불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끝까지 신에게 도전한다. 대극의 긴장 속에서 한편으로 신의 정의에 대해 질문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류의 정신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인간이 신의 대극성을 인식하고 그 부담을 떠맡음으로써 신의 인간화

56) 발터 니그(2012) : 앞의 책, p63.

57) 로맹 롤랑(2013) : 《미켈란젤로의 생애》 (이정림 역), 범우사, 파주, p129.

58) 이부영(2011) :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p318.

가 실현된 것이다.⁵⁹⁾

고대의 신화에 나온 Marsyas와 구약 성서의 욱,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이었던 미켈란젤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신의 영역을 넘보았다. 신에 근접하는 자질과 의식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극도로 첨예한 대극의 긴장 속에 던져질 수 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전담으로써 마침내 구원에 이른다. 신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자아의 오만을 의미한다. 인간의 정신은 의식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인간의 전체성은 의식 외에 “경계 지을 수 없고 특정지을 수 없는 광범위한 무의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식은 언제나 커다란 원 속에 있는 작은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⁶⁰⁾ 따라서 부분이 마치 전체인 양 행동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자아와 자기(Self), 부분과 전체라는 대극 구도 속에서, 자아가 회피하지도 않고 자기(Self)에 의해 사로잡히지도 않은 채 갈등에 직면했던 전형적 존재들은 살갓이 벗겨지는 벌을 받는다. 그러나 징벌은 오히려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이었으며 이 때 자기(Self)가 드러난다. 무의식적이었던 것이 의식으로 통합되며 진정한 전체가 된다. 우리는 희생을 통해서 자기(Self)를 얻게 된다.⁶¹⁾ Marsyas 신화나 욱기는 이러한 상징의 전범(典範)으로써 인류 전체의 개성화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민담에도 피부 박리나 허물벗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으며, 반대로 가죽을 뒤집어쓰는 주제 또한 발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껍질을 벗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기존의 자아를 희생하고 더 큰 자아로 나아가는 개성화 과정의 한 단계를 상징한다. 그렇다면 가죽을 뒤집어쓰는 데에는 어떤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을까 민담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한 개인의 꿈이 그의 삶에서 전체성을 지향하는 무의식적 활동인 것과 마찬가지로, 집단의 꿈과도 같은 민담은 인류 전체의 정신을 새로운 균형으로 이끌어 가는 작용을 한다. 민담에는 피부 껍질이나 짐승 가죽과 관련된 주제들이 풍부하게 나타나 있지만 깊이 다루자면 그 자체로 방대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

59) Jung CG(2007) : “욕에의 응답”, 《인간의 상과 신의 상》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숲, 서울, pp374-375.

60) Jung CG(2007) : “미사에서서의 변환의 상징”, 《인간의 상과 신의 상》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숲, 서울, pp241-242.

61) Jung CG(2007) : 앞의 논문, pp246-247.

기에서는 가죽을 입는 것에 국한해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원시 부족들은 뱀이 탈피한다는 사실을 관찰하면서 피부 껍질에 의한 위장(偽裝)이나 변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상상해 내었을 것이다.⁶²⁾ Tschad의 민담에서는 죽은 자의 귀신이 한 여자를 잡아먹고 그 여자의 가죽으로 배낭을 만든다. 다른 여자가 귀신을 죽이고 뱃속에 들어 있는 먹힌 여자의 피와 살을 꺼내어 뼈와 함께 피부 배낭 속에 넣는다. 그렇게 다시 모아진 죽은 여자를 채찍으로 치기 시작하자 여자가 살아난다.⁶³⁾ 멕시코의 마녀 이야기에서 어떤 마녀는 마술로 자신의 피부를 분리할 수 있는데 그녀가 없는 사이 그 가죽에 소금과 후추를 뿌리면 그녀는 그것을 다시 입을 수가 없다.⁶⁴⁾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피부는 벗기거나 입을 수 있는, 분리가 가능한 신체 부위라는 관념을 읽을 수 있다.

북아프리카 누비아 지방에는 데몬 Irkabi가 살해되어 가죽이 벗겨지고 한 남자가 그것을 입고 Irkabi의 아내로 하여금 남편이라고 믿게 만드는 이야기가 전해진다.⁶⁵⁾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아메리카 인디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데 한 사기꾼이 죽인 남자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그의 아내를 유혹하려 한다. 그런데 이를 잡을 때 머리 가죽에서 바늘로 꿰맨 자국이 발견됨으로써 들롱나 죽임을 당한다. 원시 의례에서 대지에 푸른 기운이 되살아나기를 풍요의 신에게 기원할 때 희생시킨 인간의 피부를 입는 풍습이 있었고, 포로의 피부를 질병이나 악운을 막아주는 부적으로 쓰기도 했다.⁶⁶⁾ 원시 관념에서 피부를 걸친다는 것은 그 대상의 속성을 취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짐승의 가죽을 걸치면 그 동물이 가진 힘 혹은 마나를 넘겨받는 것으로 여겼던 믿음도 같은 맥락이다. 사람이 동물 가죽을 입으면 그 동물과 접촉하여 그들의 본능적 지식에 접근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⁶⁷⁾ 이러한 관념은 샤먼의 무복에서 잘 나타난다. 무복에는 새, 순록, 곰 등 짐승의 모양을 본 딴 의상과 가면, 장식들이 있는데 이를 입음으로써 샤먼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

62) Brednich RW(1990) : *Enzyklopädie des Märchens, Bd. 6*, Walter de Greyten, Berlin, p624.

63) Brednich RW(1990) : 앞의 책, p625.

64) Brednich RW(1990) : 앞의 책, p625.

65) Brednich RW(1990) : 앞의 책, p625.

66) Jobes G(1962) : *Dictionary of Mythology Folklore and Symbols Part 2*, The Scarecrow Press, Inc., Lanham, p1464.

67) Cooper JC(1978) :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Thames and Hudson Ltd., London, p153.

로 바뀐다.⁶⁸⁾ 짐승이 상징하는 바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새는 대표적인 사면의 보호신으로 새의 가면이나 깃털 장식은 사면으로 하여금 천상계와 지하계를 여행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다.⁶⁹⁾ 새처럼 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지하의 사자들의 영과 교통하며 이승의 인간이 가지지 못한 영감과 통찰을 얻게 되어 진정한 치유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암몬 축제 때 숫양을 살해한 다음 그 가죽을 벗겨 신상에 덮어 씌웠는데 이 때 양의 가죽은 암몬 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었다.⁷⁰⁾ 가죽은 그 안에 신적 생명이 깃들어 있는 신성한 것, 즉 신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씨족의 토템 동물의 가면을 쓰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의식도 이러한 관념을 반영한다. 늑대 씨족의 입문식에서는 신참자가 늑대 가죽을 뒤집어쓴 구성원들에 의해 붙잡혀 상징적으로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나야 한다.⁷¹⁾

폰 프란츠는 털을 뒤집어쓴 채 흉한 모습으로 태어난 공주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왕자와 결혼하는 내용의 민담 〈Shaggy Top〉을 해석하면서 털 투성이 공주를 의식화되어야 할 그림자로 해석했다.⁷²⁾ 동생은 미인으로 태어났으나 트롤의 공격으로 소의 머리를 갖게 되는데 털복숭이 언니가 동생을 구해준다. 동물적인 것, 의식에서 저급한 것으로 취급했던 면의 동화를 뜻하는데 이는 왕비가 아기를 갖기 전 예쁘고 고운 꽃만 아니라 검고 흉한 꽃까지 먹는 데서부터 암시된다. 높은 것과 낮은 것,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연합시키는 자기(Self)의 작용이다. 여기서 머리와 얼굴이 온통 털로 덮여있다는 것은 동물적 속성의 표시로 여성의 정신에 있어서 무의식, 자연과의 연결, 특히 감정의 가치를 회복하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³⁾ 한편 그림 동화집에 실린 〈털복숭이 공주〉 이야기에는 여성이 아버지에게 박해받을 때 짐승 털을 뒤집어 쓰는 주제가 있다. 폰 프란츠는 이런 민담들에서 여성이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것은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상태를 상징한다고 해석한다.⁷⁴⁾ 동물 가죽을 입음으

68) 미르치아 엘리아데(2003) : 《샤머니즘》, 까치, 서울, p156.

69) 이부영(2012) :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파주, p608.

70) Frazer JG(2005) : 《황금가지 제1권》 (박규태 역), 을유문화사, 서울, p332.

71) Frazer JG(2005) : 앞의 책, pp722-723.

72) von Franz ML(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 London. pp164-165.

73) von Franz ML(1996) : 앞의 책, p165.

74) von Franz ML(1996) : 앞의 책, p166.

로써 동물적 충동과 정서에 사로잡히는 것은 동물의 영역으로의 퇴행이지만 동시에 아니무스에 의해 무시되었던 여성의 본성과 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맺 음 말

피부는 의학적으로는 신체의 보호막이며 중요한 생리적 기능들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다른 한편 개인이나 집단 속에 깃들여 있는 정신적 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곳이다. 본 논문은 피부 위에서 읽을 수 있는 인류의 정신적 표상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했다. 분석심리학의 관점을 바탕으로, 피부라는 물질적 대상 위에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 왔는지 조명해 보았다. 피부는 페르조나를 담는 그릇이며 자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접촉이 일어나는 곳으로서 에로스가 직접적으로 구현되는 자리이며 개성화를 추구하는 자기(Self)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 되기도 한다. 가죽을 뒤집어쓰는 것은 그 가죽 입자의 속성이나 마나를 취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고, 피부 허물을 벗는 것은 자신을 바치는 희생의 상징으로써 새로운 의식성으로 나아가는 자기실현의 결정적인 단계를 표상한다. 상징은 의미를 품고 있다. 피부병은 신체 위에 나타난 하나의 상징으로서 의식의 삶이 본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무의식으로부터의 지적일 수 있으며 그 의미를 이해할 때 상징의 목적 의미를 실현할 길이 열린다. 치료자는 피부 증상의 치료 뿐 아니라 환자와 더불어 그 상징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치유는 오직 환자로 하여금 그 자신을 넘어서도록 그리고 자아 속의 얽힘을 넘어서도록 인도하는 것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이다.”⁷⁵⁾

인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피부에 얽혀 있는 이야기는 실로 무한할 것이다. 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피부라는 주제에 대해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고찰들이 있을 줄 안다. 본 논문은 진정한 자신을 향해, 존재의 중심을 향해 이어져 가는 인류의 삶 가운데서 피부라는 창을 통해 그 정신적 현상에 작은 빛 줄기 하나 비춰본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있고 흥미로운 작업임에 비해 필자의 학문과 식견이 부족함이 유감스럽다.

75) Jung CG(1968) : CW 13, “The philosophical Tree,” *Alchemical Studies*,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302.



그림 1. 미켈란젤로 작 <최후의 심판>(부분)

참고문헌

- 니나 자블론스키(진선미 역)(2012) : 《스킨》, 양문, 서울.
 대한스트레스학회(2013) : 《스트레스 과학》, 한국의학, 서울.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2008) : 《피부과학》, 여문각, 서울.
 도정일 엮음(2013) : 《인간의 가치 탐색》,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로맹 롤랑(이정립 역)(2013) : 《미켈란젤로의 생애》, 범우사, 파주.
 맥스웰 몰츠(공병호 역)(2003) : 《성공의 법칙》, 비즈니스북스, 서울.
 미르치아 엘리아데(이윤기 역)(2003) : 《샤머니즘》, 까치, 서울.
 발터 니그(윤선아 역)(2012) : 《미켈란젤로》, 분도출판사, 왜관.
 용 CG.(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2) : 용 기본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_____(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 : 용 기본저작집 3. 《인격

- 과 전이», 솔 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7) : 용 기본저작집 4.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솔 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5) : 용 기본저작집 7. <상징과 리비도>, 솔 출판사, 서울.
- _____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 : 용 기본저작집 9. <인간과 문화>, 솔 출판사, 서울.
- _____ (이부영 외 역)(2013) : <인간과 상징>, 집문당, 서울.
- 이부영(2011) :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 _____ (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파주.
- _____ (2012) :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파주.
- 이유경(1996) : <심성연구>, 제11권 (통권 제15호).
- 조현철(2003) : <문신의 역사>, 살림, 서울.
- 차추환 역(1984) : <논어>, 을유문화사, 서울.
- 프레이저 JG(박규태 역)(2005) : <황금가지 제1,2권>, 을유문화사, 서울.
- 피에르 그리말(최애리 역)(2009) : <그리스 로마 신화사전>, 열린책들, 파주.
- Gawkroder DJ(이민걸 외 역)(2008) : *Dermatology An Illustrated Color Text 4th Ed.*, 군자출판사, 서울.
- Brednich RW(1990) : *Enzyklopädie des Märchens*, Bd. 6, Walter de Greyten, Berlin.
- Cooper JC(1978) :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 Thames and Hudson Ltd., London.
- Jobs G(1962) : *Dictionary of Mythology Folklore and Symbols Part 2*, The Scarecrow Press, Inc., Lanham.
- Jung CG(1953) : CW 7, *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69) : CW 8,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68) : CW 13, *Alchemical Studies*,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 Maguire A(2004) : *Skin Disease : A Message from the Soul*, Free Association Books, London.
- Walker C & Papadopoulos L(Ed.)(2005) : *Psychodermatology : The Psychological Impact Of Skin Disorders*, Cambridge Univ Pr, New York.
- Suarez AL(2012) : “Psychoneuroimmunology of Psychological Stress and Atopic Dermatitis: Pathophysiologic and Therapeutic Updates”, *Acta Derm Venereology*, 92
- Ulanov AB(2001) : *Attacked by Poson Ivy*, Nicolas-Hays, Inc., York Beach.
- von Franz ML(1992) : *Psyche and Matter*, Shambhala, Boston.
- _____ (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hambhala, Boston&London.

Shim-Sŏng Yŏn-Gu 2014, 29 : 2

〈ABSTRACT〉

A Study on Skin

–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

Young Sun Pahk, M.D.*

This thesis is an psychological study investigating the meanings of skin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Skin, as the outermost layer of our body, protects the body and carries out essential physiologic functions. It is an organ of the body and also psychological contents can be expressed on it in various forms. We can find sociocultural connotations of skin, some of which are demonstrated in our language.

Skin may become a carrier of persona which defines a person's role in the society. And it can be a place where ego is expressed. Eros is the principle of relationship by Jung's definition and skin is the space where eros is realized intensely. Skin may carry meanings as a symbol of transformation. Skin disease can be interpreted as a message from Self in certain cases. The theme of casting off skin in myths and dreams can be an analogy of an individual's sacrifice for individuation, and putting on a skin may imply taking special properties in psychological level.

KEY WORDS : Skin · Analytical psychology · Persona · Ego · Eros · Individuation.

*Jungian Psychoanalyst, Family Physician, KEB Clinic